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로 밥먹영 살아보게 마썸 (19)

온라인 예술활동 구축 중·단기 계획을

온라인 미디어 활동 공모 제주 91건에 신청액 38억 창작·향유 수요 반영 결과 작년 말 재단 중기 전략 비대면 반영한 보완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JFAC 아트 체인지업' 공모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 6억90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돼 관객개발형, 창작활동형, 플랫폼기반형별로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1~15일 신청서를 받은 결과 지원신청액만 37억 7900만원에 달했다. 접수 건수는 100건에 육박하는 91건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주 등 전국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실시한 이 사업이 현장 예술가들에게 통한 데는 비대면 예술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향후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선 온라인 유형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문체부 온라인 예술활동 49억 신규 편성=문체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 6조8273억원 편성 계획을 밝혔다. 올해 대비 총 3470억원 증액된 규모다. 코로나19 이후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문화예술·콘텐츠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이번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 예술 활동 지원에는 4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장 등 현장 중심의 예술창작 활동과 문화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을 늘렸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도 2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다.

▶지원 유형 신설·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 검토=제주에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제주문화재단에서도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내년 온라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하

려는 모습이다. 예술지원팀은 온라인 기반 사업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문화팀에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예술가의 창작 역량, 기획자의 기획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문화예술 미디어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부서별 추진과 별개로 제주문화재단에서 온라인미디어 예술 활동 분야 구축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생태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한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 전략 연구'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는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가 밀려들기 이전의 일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예술인 복지 등 문화계의 흐름을 담아내기도 했지만 감염병 확산이라는 외부 환경 분석이 빠져있다. '인택트', '온택트' 시대에 맞는 제주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계의 변화된 대책이 더해져야 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요망진 작품상' 수상작 '비 내리는 날의 양자강'.

“영화 속 여성들 여전히 고군분투”

닷새 일정 여성영화제 폐막 단편 경선 작품상 '... 양자강'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요망진 단편 경선' 심사 결과 '요망진 작품상'은 '비 내리는 날의 양자강' (차정윤 감독, 2019)이 수상했다. '요망진 관객상'은 '결혼은 끝

났다' (백지은 감독, 2020)가 받았다. 사단법인 제주여성회(공동대표 이경선·이양진)는 영화제 폐막일인 20일 메가박스 제주점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요망진 단편 경선' 시상식을 실시했다.

'요망진 단편 경선'은 한국 단편영화 중 여성주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든 여성영화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494편이 몰렸고 예심을 거친 10편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허지은 감독, 이정원 제주씨네아일랜드 전 사무처장, 윤홍경속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본선 심사위원들은 “영화 속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가부장제의 모순과 폭력 속에서, 가족 해체의 혼돈 속에서, 자본주의가 만든 양극화와 빈곤의 연쇄 속에서, 성폭력의 굴레 속에서 여성들은 아파하고 연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작품상 수상작의 경우 “여성영화” 본연의 예술적 성취와 정치적 메시지, 공감대가 잘 충족된 수작”이라고 호평했다.

이번 영화제는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란 표어 아래 지난 16일 개막해 5일 동안 펼쳐졌다. 상영작은 초청작 36편, 단편경선 10편 등 46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 수를 회당 50석으로 줄여 영화제를 진행했다. 전선희기자



홍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문헌 자료가 못다 전한 이야기 비문에

(6) 제주 유배인 적려유허비 제주 유배인 350명 전후 관련된 장소 유허비 6기 제주 끼친 영향 등 담겨 충암·우암·서재·동계 등 4기 조선시대 세운 비석



제주시 오현단에 있는 충암김선생적려유허비.

제주 유배인은 350명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를 기리기 위해 유배 장소에 비석을 세웠는데 현재 6기가 있다. 충암 김정 적려유허비, 우암 송시열 적려유허비, 동계 정온 적려유허비, 서재 임징하 적려유허비, 추사 김정희 적려유허비, 서재 한천 적려유허비다. 앞의 네기는 조선시대에 세운 것이고 나머지 두 기는 최근의 것이다.

유허비는 기존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제주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유배인과 관련해 정사나 사서에 소개된 행적이나 업적 말고 실제 언제 제주에 들어왔고,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와 관련된 글이 비석에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충암김선생적려유허비(冲菴金先生謫處遺墟碑)는 제주시 오현단 오현조두석 왼쪽(동쪽) 뒤편에 서 있다. 현재 삼반산만 남아 있고 하반산은 없다. 적거지였던 가락천 동쪽에 파손된 채 있던 것을 해방 후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비 후면의 비기로 보아 1852년(철종 3) 11월 당시 목사였던 백희수와 판관 임백연이 옛 적거지에 세워 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우암송선생적려유허비(尤庵宋先生謫處遺墟碑)는 오현단에 들어서서 향로당 바로 옆, 첫 번째로 세워 있고 가점석과 비신, 귀부로 이루어져 있다. 총 높이가 220cm나 되는 매우 큰 비석이다. 1772년(영조 48) 2월 목사 양세현이 송시열의 적소가 있었던 제주시 읍도1동(칠성로) 1289번지에 세웠다. 당시 제주에 유배 왔다가 풀려난 권진응의 권유로 세워졌는데,

후면에 김양행이 짓고 이극생 글씨로 쓴 비기가 있다. 1801년(순조 1)에는 목사 정관휘가 비각을 신선했다. 1935년 일제강점기에는 제주항교로 이견 되었다. 1945년 해방 후 제주항교에 제주중학교가 들어섰고, 1977년 제주중학교 운동장이 확대되면서 그해 4월 오현단으로 옮겨졌다.

서재임선생적려유허비(西齋任先生謫處遺墟碑)는 1862년(철종 13) 4월 임징하의 5대손 임헌대(任憲大) 제주목사가 세웠다. 처음에는 귀양살이하던 감산리 속칭 '목은터' 고제영(高濟英) 집이 있던 곳에 세웠으나, 그 후 고씨 후손이 감산리 274번지(속칭 장기터)로 이사하며 비석을 옮겼다가 지금은 안덕면 감산리 복지회관 마당 한 쪽에 있다. 후면에는 5대 종손인 경연관 임헌회(任憲晦)가 짓고 제주목사 임헌대가 쓴 비명이 새겨 있다. 그는 제주 유배 생활 중 예전에 제주목사를 지내며 무명세 폐지 등에 나선 임홍망(任弘望)의 손자라 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임징하가 제주를 떠날 때 남겼다는 '제주 유생과 헤어지며(留訣諸生)'의 시가 '서재집'에 실려 전한다.

동계정선생유허비(桐溪鄭先生遺墟碑)는 1842년(헌종 8)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가 유배생활

을 하던 추사 김정희와 협의하여 적소가 있었던 대정성 동문 안 막은골(대정읍 안성리)에 세웠다. 그 후 동문 성 밖에 있다가 1963년 대정읍 보성초등학교 교정 안에 옮겼으며, 1977년 4월 현 보성초 입구로 옮겨 세운 것이다. 후면에는 이원조 목사의 비기가 새겨져 있다.

표선면 가시리 청주한씨충의사 서재한공유허비(愬齋韓公遺墟碑)는 비문 말미 '송정후오기묘년중추월성최익헌 근식(崇禎後五己卯年仲秋月城崔益鉉 謹識)'으로 볼 때 1879년(고종 16) 가을에 세웠으며 면암(勉庵) 최익현이 글을 지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비석을 세우던 1879년은 그가 흑산도에서 제2의 유배생활을 하다가 풀려 고향에 방축 되던 해다. 이런 점으로 보아 그가 제주도의 유배 생활 때 비문을 미리 써놓은 것인지 또는 흑산도나 그가 있던 경기도 포천에 가서 써온 것인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이 비는 그때 세운 비가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은 아니다. 1976년 한씨문중회가 마멸도가 심한 비신은 땅에 묻고 새 비(서재한공회천유허비愬齋韓公諱蔚遺墟碑)를 제작하여 비기는 그대로 새기고 기존 비의 관석을 사용하여 세웠다. 그 후 사당을 짓기 위해 땅을 파던 중 매미가 발견되었는데, 서재한공유허비라 되어 있고 현재는 이 비까지 2기가 함께 세워 있다.

대정읍 제주추사관에 있는 추사 김선생적려유허비(秋史金先生遺墟碑)는 건립 연월일, 건립 주체가 새겨져있지 않다. 확인 결과, 1970년대말 건비했고 비의 글씨는 연봉 홍중시의 것으로 손자인 만능 홍정표 소장 서예를 제공했다. 뒷면 글씨는 청담 김광추가 썼다. 비에는 추사 김정희의 약력, 제주 유배생활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담겼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축
CONGRATULATIONS

취 득



University College London
공학 박사

University College London
공학박사(컴퓨터공학과)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동 군
(제주일고, 제주대학교 졸업)
(부: 한재진 · 모: 변영심)

(사)제주시새마을회 회장 김 창 기

축
CONGRATULATIONS

수 상

새농민상 본상



이석근·박유미 부부


제55회 새농민상 본상에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을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농촌지도자 제주시 발전협의회
회 장 장 덕 현 의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득

무역물류학 박사



오 진 호
(父: 오현련 · 母: 강영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물류학박사
(국제물류전공)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모 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부이사관 양한식 前 국회협력관)